

전방·일신방직터 ‘복합쇼핑몰’ 개발 협상 순항

광주시·휴먼스홀딩스, ‘공공기여 계획·협상’ 내달 마무리 ‘더현대 광주’·호텔·아파트·공장 시설물 보존 등 구체화

광주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인 전 남방직·일신방직 터에 대한 광주시와 사업자 측의 개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더현대 광주’와 49층 규모의 특급호텔, 4천여세대 공동주택과 함께 근대화유산인 공장 시설물 개발 계획 등이 구체화되면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와의 ‘공공기여 계획 및 협상’을 오는 7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지를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 이익 절반(40~60%) 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는 현재 일반

공업 지역이다. 이를 일반 상업, 준주거, 2종 일반주거, 자연 녹지 등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를 현금 또는 도로, 공원, 주차장, 건물 등 기반 시설로 내놓게 된다.

현재 광주시와 사업자가 각각 추첨을 통해 결정한 2곳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한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 광주시에 지회소재지를 둔 곳을 선정했다.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여 규모와 형태가 결정되면 협상은 마무리되지만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상승 예상액 대비 기여 비율 등을 놓고 막판 줄다

리기도 예상된다.

개발 계획도 일부 조정하고 구체화됐다.

전체 개발 부지 29만6천340㎡(8만9천642평)에는 ‘더현대 광주’를 비롯해 300실 규모의 40층 호텔, 아파트 4천18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호텔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객실은 50실 늘었으며 아파트는 500여세대 줄었다.

호텔이 들어설 ‘랜드마크 타워’는 전체 부지 개발 국제 설계 공모에 당선된 랜드마크의 여반 에이전시에서 설계권이 주어졌다.

어반 에이전시의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는 환경·경제·사회적

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도로나 자전거로 15분 이내 생활 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15분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을 적극 반영했다.

근대화유산인 공장 시설물 보존 대상도 기존 14개에서 1개 늘어난 15개로 정해졌다. 화력발전소, 보일러실(2개), 물탱크 등 해방 이전 시설물 4개는 원형 보존하고 해방 이후 건립된 공장, 기숙사 등 나머지 11개는 시설별로 원형·일부·이전 보존한다.

공공기여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협상이 끝나면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의견 청

취,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가 넘어간다.

광주시는 토지 용도를 변경한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되고 건축 인허가 등 과정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되면 2024년 말 착공하고 3년 뒤인 2027년 말 또는 2028년 초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일신방직 부지는 1980년대 일본의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뿌리로 일제 수탈의 아픔과 함께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다. 근현대 시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선경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4일 보성군 회천면의 한 산사태 취약지를 방문, 관리실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지사 “장마철 인명 피해 제로” 강조

보성 산사태 취약지·배수펌프장 등 현장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는 장마를 앞둔 지난 24일 보성군 회천면 산사태 취약지 관리 실태와 보성읍 배수펌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대응 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보성 회천면 회령리 산사태 위험지역은 최근 사방댐 설치를 완료해 산지 하부의 주택 안전성을 확보했다.

보성읍 배수펌프장은 침수에 취약한 보성읍의 수해 복구와 항구적 피해 방

지를 위해 2018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후 132억원(국비 50%·지방비 50%)의 예산을 들여 2022년 8월 설치를 완료했다.

김영록 지사는 “주민 생활권 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은 응급조치와 함께 ‘선 주민 대피, 후 보고 체계’가 중요하다”며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남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주민 대피 체계 구축, 재해 위험지역 지정을 통한 재해 예방사업 추진 등 도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지역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은 557개소로 비상 상황 시 1만1천647세대 1만5천435명이 대피하도록 사전 통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2천890개소를 지정해 5천777세대 7천771명이 대피하도록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을 대피소로 운영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 총력

취약시설 7천338곳 점검·보험료 1천422억 지원

전남도는 25일 “여름철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따른 여름철 농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니뇨로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가운데 기상청은 올 여름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시·군, 농협,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기상상황 전파, 재해유형별·품목별 대응요령 안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추진 등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리시설 4천466개소, 과수·원예시설 630개소, 축산시설 2천242호 등 재해 취약시설 7천338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농작물 생육상황 등 분야별 상습

피해지역을 사전 정비해 피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매년 이상기후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1천170억원, 농업인 안전보험 150억원, 농기계 종합보험 102억원 등 3대 농업정책 보험에 1천422억원을 지원하고 가입을 확대토록 권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시·군, 농협과 함께 7월 14일까지 한 달간 보험 가입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해 농업인이 빠짐없이 가입하도록 마을별 홍보방송 실시, 미가입자 대상 안내문자 발송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정기자

광주지역 민·관 청렴 실천 힘 모은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

광주시는 25일 “지난 23일 ‘2023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 기관별 실천과제와 공동과제를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청렴 실천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발족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광주시·시의회·교육청·자치구·공공기관·시민사회·기업 등 28개 기관·단체로 구성됐다.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박남언 시의회 사무처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직무대행,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오

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회장, 전지연 부패방지국민운동광주총연합회 회장, 안병주 광주경찰청 공동대표, 정태영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등 2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여 기관은 공동 이행 과제로 청렴 주간인 ‘청바지 날(DAY)’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정해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고위직부터 청렴 실천 다짐을 위해 ‘공정·소통·배려 3행(行), 부패·청탁·갑질 3무(無)’ 실천을 결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광주시의 청렴 정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선경기자

보성서 대한민국 청년 유림대회

전남도는 지난 24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성군관 본연의 자세를 확립해 민족문화 창조적 계승사업 동참을 다짐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청년 유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철우 보성군수, 최종수 성군관장, 최영갑 성군관유도회 총본부회장, 지역 유림 대표자 및 전국 청년유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도덕성을 함양하고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대회는 식전공연과 기념식, 주제발표 및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선조들께서 남긴 전통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보험사기 ZERO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